

2025학년도 2학기
교육대학원 학습공동체
결과보고서



전공	진로진학상담전공
학습공동체 명단 (대표학생 포함)	임■주 박■화 김■혜 홍■연
학습 주제	교과교육과 진로 교육의 연계 방안 연구
총 활동 시간	24시간
제출일자	2024 . 11 . 23 .
대표학생	김■혜 (인)
전공주임교수	홍성표 (인)

※ 해당 결과보고서는 학습공동체 연구활동에 대한 내용 및 성과 공유를 위해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됨을 알려드립니다.

<학습공동체 학습일지>

일자	2025.09.20	시간	13:00-17:00 (4시간)
장소	도당중학교	참석현황	총4명

□ 학습 내용

진로 소외계층 학생(저소득층)의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1. 지원 필요성

저소득층 학생은 경제적 제약, 정보 부족, 진로 경험 기회 제한 등으로 진로 탐색에서 불리하다. 이러한 격차는 학업 성취와 직업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격차를 확대할 수 있어 체계적 진로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2. 진로 정보 접근성 강화

정확한 정보 접근은 진로 탐색의 기본이다. 온라인 진로 정보 플랫폼 개선과 무료 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 학교에서는 진로 상담 전문가와 AI 기반 진로 추천 시스템을 활용해 학생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3.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진로체험 확대

직업 체험은 진로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비용 부담이 문제다. 지자체·기업 협력으로 무상 체험 바우처를 제공하고, 지역 산업·문화예술·과학기술 분야 현장 견학과 직업인 인터뷰 프로그램을 확대해 진로 이해를 높여야 한다.

4. 멘토링 및 지역사회 연계 강화

전문가, 대학생, 지역 직업인 멘토링은 진로 동기를 높인다. 장기 멘토링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아동센터, 청소년센터, 복지기관과 연계하여 진로·정서·학습 지원을 통합 제공하면 안정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5. 가정 기반 지원 체계 구축

정보 부족과 환경적 제약으로 부모가 진로를 돕기 어려운 경우, 학교는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 설명회와 온라인 진로 가이드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가정 방문 상담이나 화상 상담 등 다양한 지원 방식을 통해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6. 종합적 접근 필요성

진로 소외계층 지원은 정보, 경제, 멘토링, 체험, 가정 환경 개선 등 다층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학교, 지자체, 기업, 지역사회가 협력해 체계적 진로교육 생태계를 구축하면 저소득층 학생들도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며 미래를 설계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 학습일지는 학습일자별로 작성할 것.

<학습공동체 학습일지>

일자	2025.09.27	시간	13:00-17:00 (4시간)
장소	도당중학교	참석현황	총4명
□ 학습 내용 진로 소외계층 학생(다문화 학생)의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1. 다문화 학생 대상 진로지원의 필요성 다문화 학생들은 언어 장벽, 문화 차이, 부모의 진로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진로 탐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는 학업 의욕 저하와 진로 선택의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어, 체계적인 진로교육 지원이 요구된다. 2. 언어·문화 기반의 진로 정보 제공 강화 다문화 학생들은 정보 이해 과정에서 언어적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학교는 쉬운 한국어 버전의 진로 정보 자료를 제공하고, 필요 시 모국어 안내 자료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 또한 다문화 담당 교사와 진로 상담 교사가 협력해 개인별 언어 수준에 맞춘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3. 진로체험 및 멘토링 프로그램 다양화 다문화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다문화 배경의 직업인을 멘토로 연결하는 멘토링을 운영하면 학생들의 자아정체감과 진로 동기 향상에 도움이 된다. 특히 학생의 문화적 배경을 긍정적으로 반영한 프로그램은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 4. 학교·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 청소년센터, 비영리기관 등과 협력하여 학생들에게 학습, 정서, 진로지도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협력 모델은 학교에서 충족하기 어려운 언어·심리·문화 분야 지원을 보완할 수 있다. 5. 가정 기반 진로교육 지원 강화 다문화 가정의 부모는 한국 교육 정보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학교는 부모 대상 진로 정보 설명회, 다국어 진로 안내문 제공 등을 통해 가정에서도 기본적인 진로지도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야 한다. 필요할 경우 통역 지원이나 온라인 안내 자료도 제공하여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 학습일지는 학습일자별로 작성할 것.

<학습공동체 학습일지>

일자	2025.10.11	시간	13:00-17:00 (4시간)
장소	도당중학교	참석현황	총4명
□ 학습 내용 진로 소외계층 학생(농어촌 학생)의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1. 농어촌 학생 대상 진로지원의 필요성 농어촌 지역 학생들은 도시 대비 교육 인프라가 부족하고, 진로 관련 기관이나 체험 시설 접근성이 낮아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이러한 격차는 진로 선택의 폭을 좁히고 학업 및 직업 선택에서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농어촌 학생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진로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2. 온라인 기반 진로교육 지원 확대 지리적 제한을 보완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진로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실시간 진로 상담, 온라인 직업 체험 콘텐츠, 다양한 직업 관련 강좌 등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지역에 상관없이 균등한 진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학교는 안정적인 인터넷 환경과 디지털 기기 지원을 통해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3. 지역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농어촌 지역의 산업·자원 특성을 반영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농업·해양·생명과학 분야 현장 체험, 지역 기업 방문, 지역 전문가 멘토링 등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실제 직업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필요할 경우 도시권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교통 지원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 4. 학교·지자체·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농어촌 학교는 진로교육 인력과 시설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지자체, 공공기관, 지역 기업과 협력하여 교육 자원을 공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외부 강사 초청 수업, 진로 캠프, 진로 특강 등을 정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전체가 학생 진로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5. 가정 기반 진로지원 강화 농어촌 가정은 부모의 직업 다양성이 제한되거나 진로 관련 정보 접근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 가정에서의 진로 지도에 어려움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학교는 학부모 대상 진로 정보 자료 제공, 온라인 설명회, 가정 연계 진로 활동 안내 등으로 부모의 참여를 높여 학생 지원 효과를 강화해야 한다.			

* 학습일지는 학습일자별로 작성할 것.

<학습공동체 학습일지>

일자	2025.10.18	시간	13:00-17:00 (4시간)
장소	도당중학교	참석현황	총4명

□ 학습 내용

진로 소외계층 학생(장애학생)의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1. 장애학생 진로지원의 필요성

장애학생은 신체적·인지적 제약, 학교 및 지역사회 진로자원의 한계, 직업 경험 기회의 부족 등으로 인해 진로 탐색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상황은 진로 선택의 폭을 좁히고 사회 참여 기회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장애유형과 개별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 진로교육 지원이 필수적이다.

2. 개별화된 진로교육 프로그램 마련

장애학생은 개인별 능력 차이가 크기 때문에, 진로교육은 표준화된 형태가 아닌 '개별화 교육계획(IEP)'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학생의 강점, 장애 특성, 흥미를 진단한 뒤 맞춤형 진로 목표를 설정하며, 직업 생활에 필요한 기초 기술과 사회적 기술을 함께 강화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3. 다양한 직업체험 및 현장 중심 프로그램 확대

장애학생에게는 직접 경험 기반의 진로체험이 특히 효과적이다. 특수학급·특수학교는 학교기업, 직업훈련실, 직업 현장실습 등 실제 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지역 장애인고용공단·직업재활시설과 협력하여 국가 지원을 활용한 직업훈련과 실습 기회도 꾸준히 제공해야 한다.

4. 학교·지역사회·전문기관의 협력체계 강화

장애학생의 진로지원은 학교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사회 기관, 장애인복지관, 고용 지원기관 등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외부 전문가 초빙 특강, 직업 재활 전문가 상담, 지역 기업과의 연계 실습 등 다기관 협력 모델을 구축하면 진로 준비의 질을 높일 수 있다.

5. 가정 및 보호자 지원 확대

장애학생의 진로교육은 가정의 지원 여부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진다. 학교는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 설명회, 장애유형별 직업 정보 제공, 가정에서 가능한 진로활동 안내 자료 등을 제공해 가정 기반 진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상담사·통역 지원을 통해 부모의 참여를 높일 수 있다.

* 학습일지는 학습일자별로 작성할 것.

<학습공동체 학습일지>

일자	2025.10.25	시간	13:00-17:00 (4시간)
장소	도당중학교	참석현황	총4명
□ 학습 내용 맞춤형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방안 탐구 1. 맞춤형 진로교육의 필요성 학생마다 적성, 흥미, 학업 수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진로교육은 한계가 있다. 맞춤형 진로교육은 개별 학생의 특성을 반영하여 진로 탐색, 직업 준비, 자기 계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강점을 이해하고 미래 설계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2. 학생 맞춤형 진로 정보 제공 맞춤형 진로교육의 핵심은 정확한 정보 제공이다. 학교는 학생 개별 특성을 반영한 진로 검사, AI 기반 진로 추천, 온라인 진로 자료 제공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에게 맞춤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은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군과 학습 방향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3. 개별화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진로체험은 학생의 흥미와 적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맞춤형 프로그램은 학생의 관심 분야와 목표 직업에 맞춘 현장체험, 멘토링, 프로젝트 기반 활동 등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참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 지역사회, 기업과 연계하여 다양한 분야와 수준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4. 멘토링 및 상담 지원 강화 맞춤형 진로교육에서는 지속적 멘토링과 상담이 필요하다. 교사, 전문가, 대학생 멘토가 참여하는 1:1 또는 소그룹 상담을 통해 학생의 진로 계획을 점검하고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 정기적인 피드백과 상담 기록 관리는 학생의 자기 이해와 목표 설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5. 운영 체계 및 평가 시스템 구축 맞춤형 진로교육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학교 내 운영 체계와 평가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프로그램 개발, 참여 학생 관리, 성취 평가, 만족도 조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프로그램을 지속 개선해야 한다. 또한 학부모와 지역사회 참여를 유도하면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 학습일지는 학습일자별로 작성할 것.

<학습공동체 학습일지>

일자	2025.11.15	시간	13:00-17:00 (4시간)
장소	도당중학교	참석현황	총4명
□ 학습 내용 가정 및 지역사회·공공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모색 1.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진로 지원은 학교 단독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가정, 지역사회, 공공기관이 연계된 협력체계를 구축하면 교육·진로·정서 지원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 학생의 학습 효과와 사회적 역량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 2. 가정 참여 기반 강화 가정은 학생의 초기 진로 탐색과 학습 지원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학교는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 설명회, 학습·진로 안내 자료 제공, 가정 연계 활동 가이드 등을 운영해야 한다. 또한 부모 참여가 어려운 가정을 위해 온라인 참여, 화상 상담, 다국어 안내 자료 등 다양한 지원 방식도 마련해야 한다. 3.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방안 지역사회는 다양한 진로체험, 학습, 문화 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다. 학교는 지역 청소년센터, 문화시설, 기업,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력하여 진로캠프, 직업 체험,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학생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교통·재정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4. 공공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공공기관은 전문 인력, 정책 지원, 재정적 지원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 활동을 보완할 수 있다.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직업재활센터 등과 정기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여 프로그램 기획, 실행, 모니터링을 공동으로 수행하면 운영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5. 통합 관리 및 평가 시스템 마련 효과적인 협력체계를 위해서는 참여 기관과 가정의 활동을 통합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프로그램 참여 기록, 성과 평가, 만족도 조사 등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협력체계의 지속적 개선과 학생 맞춤형 지원 강화가 가능하다.			

* 학습일지는 학습일자별로 작성할 것.

<학습공동체 학습일지>

일자	2025.11.21	시간	17:00-21:00 (4시간)
장소	도당중학교	참석현황	총4명
□ 학습 내용			
진로 소외계층 학생의 진로교육 활성화 해외사례 조사 1. 미국 – 장애학생 대상 ‘전환교육(Transition Planning)’ 미국은 장애학생의 고등학교 이후 삶을 준비하기 위해 IDEA 법에 따라 ‘전환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학생이 16세 전후부터 시작되는 전환교육은 IEP에 목표와 전략을 포함하며, 장애학생이 조기부터 진로 역량과 자기결정 능력을 개발하고 졸업 이후의 삶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도록 지원한다. 2. 영국 – 진로교육의 경제적 효과 및 정책 지원 영국에서는 학교 진로교육이 장기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다. 14–15세 학생에게 외부 전문가 주도의 진로 수업을 제공하면 이후 노동시장 진입 시 임금 증가 효과가 나타난다. 또한 대학 경력센터를 통해 학생의 진로 개발과 고용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3. 호주·영국·미국 – 특수교육 대상 진로정보 지원 미국, 영국, 호주 등은 장애학생을 위한 진로정보 지원 체계가 잘 발달되어 있다. 온라인 포털, 학교 상담, 전문 기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며, 학생의 장애 유형에 맞춘 맞춤형 정보와 접근 방식을 제공한다. 4. 개발도상국 – 저소득층 청소년 역량 강화 프로그램 미국 국무부 주도의 English Access Microscholarship Program은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영어 학습과 교육·취업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경쟁력과 자기 개발 역량을 높인다. 이를 통해 경제적 소외계층 학생들이 더 나은 진로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 5. 시사점 - 맞춤형 진로교육 제도화: 미국 전환교육, 영국 경력센터 사례처럼 제도적 지원은 소외계층 학생의 장기적 진로 역량 강화에 효과적이다. - 다양한 진로정보 접근 경로 제공: 장애 유형별 맞춤 정보 제공은 접근성과 실효성을 높인다. - 역량 강화 중심 장기 프로그램: 언어, 리더십, 사회적 역량을 함께 강화하는 프로그램은 진로 기회를 확대한다.			

* 학습일지는 학습일자별로 작성할 것.